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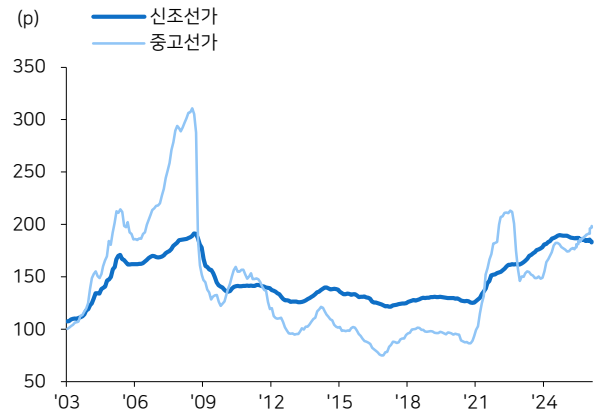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23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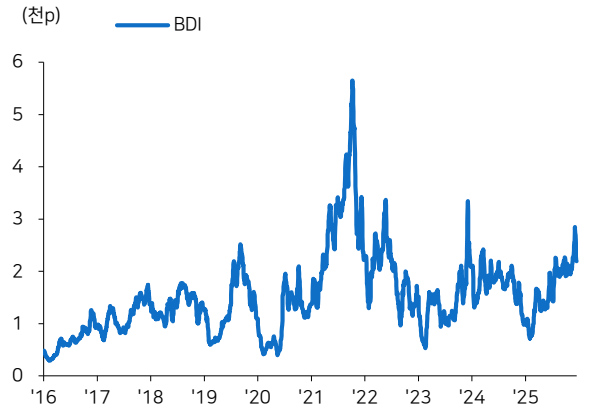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7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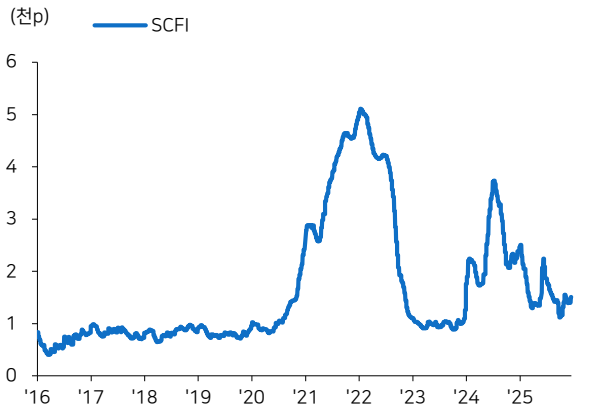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2.13 기준) 431.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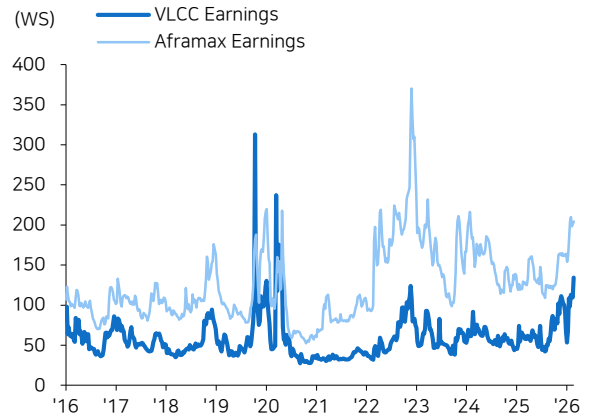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19.0p (-4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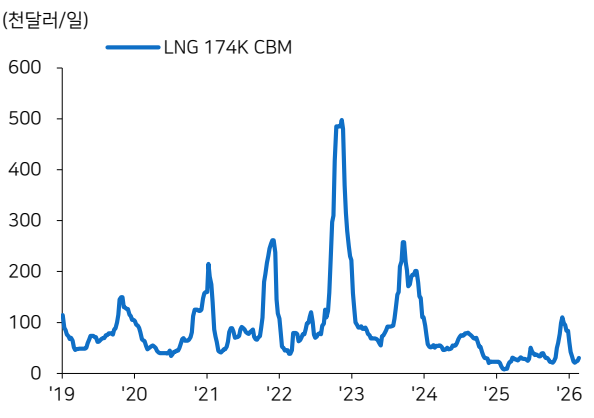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3 기준) 1,251.5p (-15.1p WoW)



VLCC Spot Rate 134.3WS (+24.6p WoW)



LNG Spot 운임 30.5천달러 (+5.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주그리스 美대사 "미·한·그리스 3자 조선협정 조만간 체결" (연합뉴스) https://zrr.kr/OpqFsr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 킴벌리 길포일 발언을 인용해 한국 · 미국 · 그리스 간 3자 조선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방위산업 중심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 역량 재건을 위한 동맹 참여를 강조해왔고, 미국과 그리스 간 호위함 건조 및 조선소 재활성화 논의도 거론됐다고 전해짐. 백악관의 해양 행동계획은 한국 · 일본과의 협력 지속을 명시했으나 그리스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며, 3자 협정이 구체화될 경우 협력 범위와 투자 방식이 주목된다고 알려짐.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잡는다"...방사청, 한화오션·HD 현대重 지원 확약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8bJb8R

정부가 총사업비 60조원 규모 캐나다 CPSP 수주를 위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에 범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지원 확약서를 전달하며 국가 차원의 보증을 공식화했다고 보도됨. 이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 구도로 전환된 방산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협업해 발굴한 산업 협력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짐. 해외 매체들은 한국의 납기 준수와 장보고-III(KSS-III)의 성능 경쟁력을 강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오커스 등 지정학적 연대 변수가 독일 TKMS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알려짐.

'HD 현대·한화 참여' 美 해군 무인수상함 수주전 대진표 '윤곽' (더구루) https://zrr.kr/vAznUa

Sea Machines Robotics가 AI 기반 STEAMRACER급 자율운항 무인수상정(USV)을 공개하고 현지 조선소 및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 미 해군의 차세대 무인 전력 확보 사업 MASC 참여를 추진한다고 보도됨. 해당 USV는 장기 임무 수행과 고속 운항, 유 · 무인 전환, 모듈형 무장 탑재가 가능한 설계로, Incat Crowther, St. Johns Ship Building, Sierra Nevada Corporation 등과 협력해 현지 건조 및 보안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으로 전해짐. 블루 워터 오토노미, 블랙씨 테크놀로지스 등 미국 기업과 함께 HD현대중공업-안두릴 인더스트리, 한화-HavocAI도 시장 진입을 모색하며 미 해군 무인수상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사업목적에 신재생 대거 추가...해상풍력 밸류체인 전방위 확대 (뉴시스) https://zrr.kr/xGYxib

한화오션이 정관 변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 설비 · 공급 · 사업권 양수도 · 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추가하며 해상풍력 중심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회사는 WTIV 4척 인도 경험과 7,687억원 규모 추가 수주를 바탕으로 신안우이 390MW 해상풍력 프로젝트(EPC 1조9,716억원 참여)에 투입을 검토하며 건조를 넘어 개발 · 운영 · 판매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짐. 3월19일 주총에서 김희철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돼 에너지-조선 융합 전략을 지속 추진할 전망으로 알려짐.

New LNG project go-aheads in 2025 will create demand for 150 vessels, GTT says (TradeWinds) https://zrr.kr/EBsNiz

멤브레인 화물창 시스템 설계업체 GTT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2025년 84mtpa 규모 LNG 프로젝트 FID에 따라 약 150척의 LNG 운반선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미 14척 신규 발주를 확보했으며, FID 대기 프로젝트와 노후선 대체 수요를 포함하면 총 450척 이상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전해짐. 한편 회사는 2025년 사상 최대 실적과 16억달러 수주잔고를 기록했으며, LNG 연료 수요 확대와 디지털 사업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려짐.

Shell says Venezuela gas project able to proceed after US licence issuance (Upstream) https://zrr.kr/yKfkIK

Shell의 베네수엘라 Dragon 가스전 개발이 미국 재무부 OFAC의 일반면허(GL 50A) 발급으로 제재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고 전해짐. Dragon 가스전은 4조2,000억입방피트 규모로, 생산 가스는 Trinidad & Tobago의 Atlantic LNG로 공급돼 액화 · 수출될 예정이며, Shell과 BP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6개 탐사 · 생산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 거래를 일부 허용한 것으로, Shell은 제재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LNG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